차승원 "12년만의 코미디? 착한 영화에 끌렸죠"

"칭찬하고 응원해주고 해야 나에게 오더라…그걸 몇번 경험"

영화 '힘을 내요, 미스터 리' 반전 코미디 영화…오는 11일 개봉

배우 차승원이 12년만에 코미디 영화 '힘을 내요, 미스터리'를 택한 것에 대해 "착한 이야기에 끌렸다"고 했다.

차승원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 카페에서 진행한 영화 '힘을 내요, 미스터리' (이계벽 감독) 관련 인터뷰에서 '착한 이야기에 끌린 것인가'라는 말에 "내 성향이 변한 것 같다. 예전에는 나만 잘 되면 되지 하는 게 있었다. 남이 좀 안 되면 내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인간이면 그럴 수 있다"며 "그런데 요즘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주위 사람이 안 되면 그 순환이 나에게 온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전체가 불안하면 길을 나가면, 사람들이 운전 습관도 바뀐다. 다툼도 많아진다. 좋은 일들이 많으면, 주변 사람이 즐거워하고 얘기하면 그 영향이 나에게 오더라. 요새는 될 수 있으면 다툼이 없는 게 좋다. 될 수 있으면 다툼의 여지를 만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칭찬하고 응원해주고 해야 나에게 오더라. 그걸 몇번을 경험했다. 그런 의미에서 성향이 바뀐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차승원은 오랜만에 코미디 영화를 찍으면서 어색함이 없었다며 "캐릭터가 힘들어서 그랬지만 (영화 속에서) 그 뒤에 사고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하나 하는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 시사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그런 (희화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몇백 명 중에 2~3분 정도였다"고 밝혔다.

더불어 차승원은 지적장애인을 희화시킨 것에 대한 부담스러운지를 묻는 질문에 "나는 희화화시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싫으신가 보다. 그것은 각자의 성향이니 어떻게 하나. 호불호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예능 속에서 '고생의 아이콘'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 "고생의 중심에는 유재석이 있다"며 MBC '무한도전'부터 시작해 최근 tvN '일로 만난 사이'에서 함께한 유재석을 언급했다.

차승원은 "유재석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 데뷔 초에 스튜디오에서 토크쇼를 많이 했다. 그런 예능의 단점이 뭐냐면 하다보면 자꾸 말을 양상한다. 그게 나 같지 않더라. 헛말이 나온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하게 돼 있다. 하지만 노동 예능은 일만 하면 된다. 간간히 내 생각에 대해서 내 습관이나 사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얘기해주면 된다"며 '노동 예능'에 대한 애정을 밝혔다.

또 "(스튜디오 예능에 대해) 욕을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노동 예능은) 그렇게 살다보니 나는 이렇더라 하는 걸 진솔하게 얘기 할 수 있다.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스튜디오에서 '뭘 했어요' 하는 것은 머리가 울린다. 근사하게 포장해서 얘기해야지 하다보니까, 실수하게 돼 있다. 그래서 스튜디오가 별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힘을 내요, 미스터 리'는 하루아침에 딸 벼락을 맞은 철수가 자신의 미스터리한 정체를 찾아가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반전 코미디 영화다.

차승원은 '힘을 내요, 미스터 리'에서 완벽한 외모와 달리 아이보다 더 아이 같은 남자 이철수 역을 맡았다.

'힘을 내요, 미스터 리'는 9월 11일 개봉한다.

'동백꽃 필 무렵' 강하늘 "공효진 향한 팬심 다 드러내…꿈같아"

오는 18일 처음 방송될 KBS 2TV 새 수목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공효진과 강하늘이 환상의 케미를 선보일 수 있었던 비결을 직접 밝혔다.

오는 18일 처음 방송될 KBS 2TV 새 수목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극본 임상춘/연출 차영훈)은 편견에 갇힌 맹수 동백을, "사랑하면 다 돼!"라는 무조건적인 응원과 지지로 깨우는 촌므파탈 황용식의 폭격형 로맨스. 더불어 동백과 용식을 둘러싼 이들이 "사랑 같은 소리하네"를 외치는 생활 밀착형 치정 로맨스다. 공효진과 강하늘은 '은(근걸)크러쉬' 동백과 '촌(놈옴)므파탈' 용식으로 만나 올가을 안방극장에 따뜻하고 유쾌한 로맨스 폭격을 선사할 예정이다.

먼저 공효진은 2일 제작사를 통해 "용식이는 너무 귀여운 캐릭터다. 대본을 처음 읽었을 때부터 '강하늘 배우가 적격'이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용식'하면 하늘씨가 떠올랐다"고 했다. 캐릭터도 찰떡인데, 연기 호흡은 더 잘 맞았다고. "나와 연기 타입도 비슷해서 아주 편하게 촬영하고 있다. 일상적인 연기를 잘 하면서도 카리스마도 있고 너무나 듬직한 남자 주인공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강하늘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드러냈다.

이어 강하늘은 "팬이었다"는 수줍은 고백으로 운을 뗐다. "효진 선배님에게 제가 갖고 있던 팬심을 다 드러냈고, 그리고 또 드러내고 있다"라는 마음을 솔직하게 밝힌 그는 "언제나 나를 용식으로 대해주시는 선배님과 서로 부담이 되지 않게 최대한 편안한 호흡을 찾아가고 있다"며 꿀케미를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이렇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분위기를 "나중에 되돌아보면 이 시간들이 꿈만 같을 것 같다"고도 표현했다.

마지막으로 공효진과 강하늘은 "매일매일 동백과 용식을 만날 시간을 기다리며 촬영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래서일까. 현장에서도 "모두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멋진 호흡이다. 역시 차원이 다른 연기와 케미다"란 이야기가 절로 나온다는 후문이다.

한편 '동백꽃 필 무렵'은 '쌈, 마이웨이'의 임상춘 작가와 '함부로 애틋하게' '너도 인간이니'의 차영훈 감독이 '백희가 돌아왔다' 이후 3년여 만에 다시 의기투합한 작품이다. '겨울연가' '해를 품은 달' '닥터스' '쌈, 마이웨이' '사랑의 온도' 등을 제작한 팬엔터테인먼트가 제작을 맡았다. '저스티스' 후속으로 오는 18일 오후 10시 방송 예정.

벤, 이욱과 '연인 사이' 인정

데뷔 9년만에 첫 공개 열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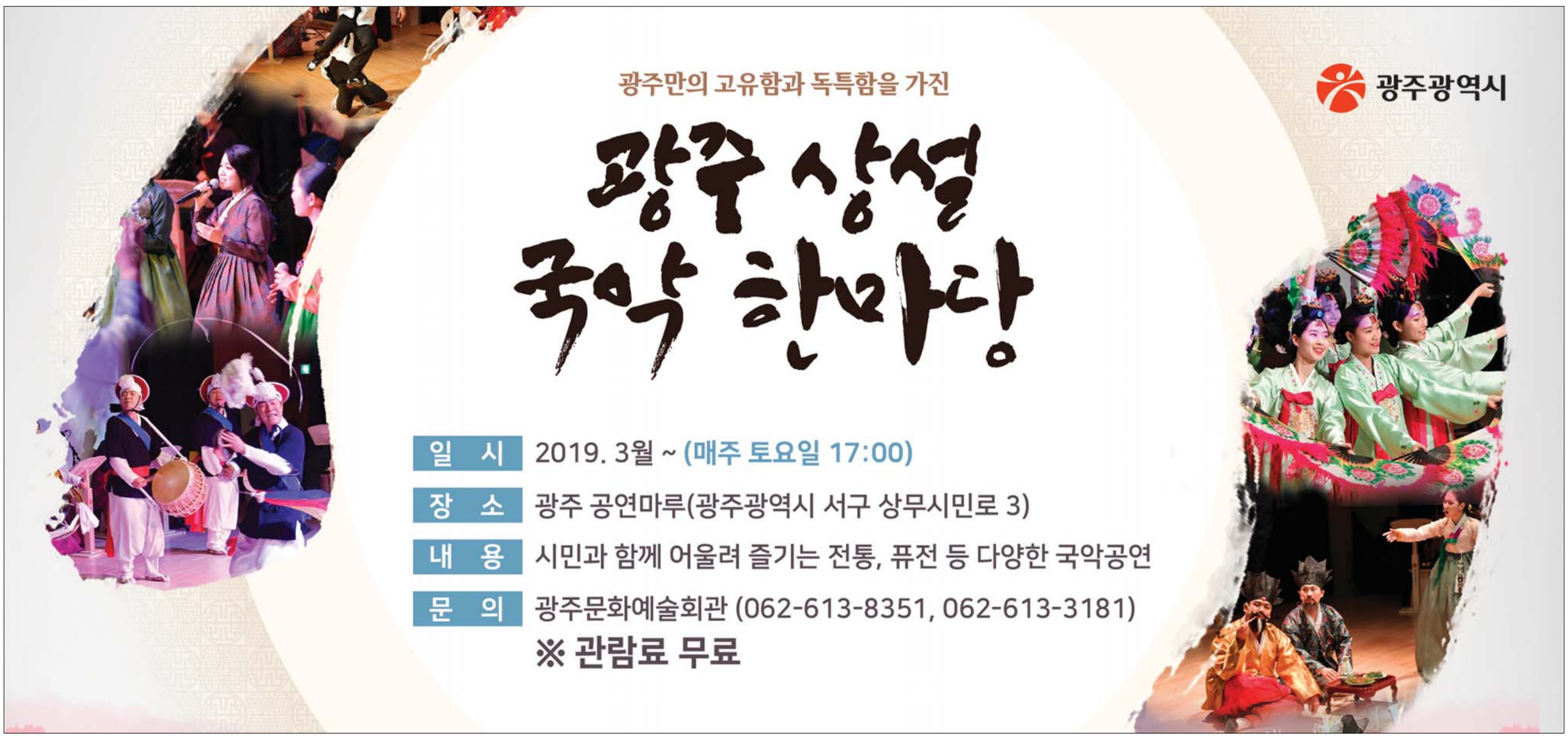
가수 벤(28)이 이욱(31) W재단 이사장과 열애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2010년 데뷔 후 9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 열애를 시작했다.

2일 뉴스1 취재 결과, 벤은 W재단 이욱(31) 이사장과 최근 열애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현재 세 달째 예쁜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 이욱 이사장은 벤의 음악을 좋아해온 오랜 팬이었다.

특히 이욱 이사장은 최근 벤의 신곡을 자신의 SNS에 홍보하는 등 공개적으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벤은 1991년생으로 지난 2010년 그룹 베베 미뇽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 후 다수 OST를 발표하며 여성 솔로 발라더로서 입지를 굳혔다. 대표곡으로는 '열애중' '꿈처럼' '180도' '안갯길' '두근두근' '오늘은 가지마' 등이 있다. 지난 7월3일 신곡 '헤어져줘서 고마워'를 발표했다.

1988년생인 이욱 이사장은 벤보다 3세 연상이다. 한양대학교 법학과 출신의 훈남으로 W 재단을 운영하며 활발한 사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욱 이사장이 몸담고 있는 W재단은 세계 각국의 정부기관 및 기업, 단체 등과 협력해 기후변화와 기후난민 긴급구호, 자연보전 캠페인 등에 앞장서는 사회기관이다.

뉴스1